

상식에 기초한 민주주의

상식(常識)이란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지녀야 할 지식, 이해력, 판단력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이해하고, 이해해야 할 가치입니다. 라틴어를 비롯한 유럽권 언어에서는 상식을 공감(共感, common sense)이라고 표현 합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공유해야 할 감성과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읽고 되새겨야 할 내용은 ‘모두가 지니고 지녀야 할’ 그리고 ‘공유하고 공유해야 할’ 이라는 대목입니다. ‘지니고, 공유하다’는 것은 일반적 표현이며 ‘지녀야 할, 공유해야 할’ 이라는 표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당위적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상식이란 양(量)보다 질(質)이란 표현과 같이 공감하는 이들의 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공감해야 할 도덕적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진리란 상식의 확인이라고 주장하고 법도 근본적으로는 결국 상식을 조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가 막힌 경우에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상식에 호소한 외침이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과 법에 어긋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몰상식과 불법입니다. 이렇게 몰상식과 불법이 난무하고 판을 치면 상식과 법은 설 자리를 잃고 엉뚱하게도 그 자리에 몰상식과 불법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인류 역사상 불의한 권력과 잔인한 왕들과 부자들에 의해 자행된 만행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식적 평가를 우리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과거를 논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란 단순히 과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를 기초로 현재를 직시하고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는 학문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이때 역사학은 곧 미래학이 됩니다. 도덕적 가치와 역사의식을 지니라는 선현들의 가르침은 바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문학가란 모름지기 진리를 설파하는 도덕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의 작품 곳곳에서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과 가정, 종교와 정치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시대적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러한 톨스토이에 대해 많은 문학평론가들은 소설가로서 소설이나 쓸 일이지 왜 아니꼽게 도덕 설교가로 행사하는가 하며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한결같이 문학가는 필연적으로 도덕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글과 언행이 일치했기에 톨스토이는 인도주의 작가로 오늘날까지 높이 추앙받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공동선에 기초한 정치는 개인과 공동체가 보다 쉽고 완전하게 자기완성을 이루게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이며 제도입니다. 때문에 신학자들은 정치란 인간 상호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이라고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철학에서 정치의 본래 의미는 정의에 기초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언론도 한가지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 소식을 공유하여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와 언론은 상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몰상식과 불법, 곧 비민주적 사회가 됩니다.

상식이 곧 법입니다. 성경과 십계명은 상식을 성문화(成文化)한 책이며 규정입니다. 십계명이란 모든 법의 근본으로 하늘을 우러르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신의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신정법(神定法)이라고 합니다. 상식의 자연법을 하느님 안에서 명문화한 것이 바로 신정법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법과 신정법은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상식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전쟁살육의 현실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전쟁의 공범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버젓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도 결국 거짓말에 동조한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란 바로 상식에 기초하여 아름답고 정직한 공동체를 이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이유와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지향해야 합니다.